

## '사랑의 매' 필요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가 학간에 한창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와서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까닭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데 있다. 체벌을 한 교사를 경청에 고발하는 학생, 교사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 자기 자신이 우리 수업 중에 고발되어 교사의 뺨을 때리는 학부모들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물론 모든 흉과 물이 모두 우리의 몸이요, 불과 바람은 우리의 본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없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면서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같은 가르침은 자연을 해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은정희  
(서울교대 교수)

교육 현장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물론 모든 흉과 물이 모두 우리의 몸이요, 불과 바람은 우리의 본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없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면서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같은 가르침은 자연을 해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인격 모독 체벌  
감정 휩쓸린 체벌  
권위적 체벌  
이것만 아니라면  
”

# 국립공원 '제산 깎아먹기'

## 골프장-스키장 8곳 '삼질'...말로만 자연보호 구역조정 정책토론회서 훼손 심각성 제기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자연계를 지키는 행위라 부른다. 그러므로 삼을·부락·산림, 온갖 길과 모든 다리와 자연의 골과, 모든 곡식·공·삼·보리나 꽃과 과일·초목·숲 따위를 응당 파괴치 말며, 응당 베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여러가지 물건들은 어느 하나도 사람이나 축생에게 있어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니전자경)

생태학적으로나 문화유산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은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우리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한국국립공원진흥원에서 열린 '국립공원 구역조정 정책토론회'에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장호 부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 8곳에 골프장과

스키장 등 모두 3백65만5천여평 규모의 레저시설 조성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4배,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1.4배에 이른다. 또 북한산·우이동·다도해상 명사십리 등 18곳 7억3천8백만평에는 대규모 집단시설지구 조성승인이거나 착공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80년부터 96년 6월까지 설악산·덕유산·치악산·가야산·태안반도·계룡산 등 6곳에 골프장을, 치악산과 덕유산 등 2곳엔 스키장 건설이 승인됐다. 이중 덕유산 골프장과 스키장, 계룡산 골프장은 이미 문을 열고 영업중이다. 설악산의 경우는 이미 백담계곡·오백천 등에 휴게소와 산장 등이 들어서 하천과 산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상황은 96년 6월까지의 문화체육부의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각 시·도가 세수확보와 지역개발 명목으로 골프장·스키장 승인을 마구 내

## 사찰소재 CF '좋은 반응'

근심을 푸는 곳 '해우소'. 사찰 화장실이 멋진 배경으로 등장하는 '불가리스' CF. 겨울편에 이어 최근 여름편이 등장. 잔잔한 웃음을 자아내며 한편의 드라마 처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광고는 해우소, 사천왕상, 작은 담배바, 우거진 숲 등 사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산사에 온 듯한 착각을 준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북한산을 컴퓨터 합성해 제작

된 이 작품에서 해맑은 표정의 등장인물로 나오는 이승철(서울고대 부속초등학교 4년)군은 어느 날 등자승이나나 문외의 울 한 웃음을 자아내며 한편의 드라마 처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광고는 해우소, 사천왕상, 작은 담배바, 우거진 숲 등 사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산사에 온 듯한 착각을 준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북한산을 컴퓨터 합성해 제작



◇ 회제를 모으고 있는 '불가리스' CF 장면.

## 성격은 선천적이다

美 아이오와대 연구팀 사람의 성격은 뇌의 뇌세포 활동 분석결과 어떤 부위가 활발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은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미국 아이오와대 데브라 존슨 교수팀은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의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은 내성적이며 뇌의 중앙 깊숙이 있는 대뇌회전과 옆 부분인 측두엽이 활발한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최근 미국 정신과학회지에 발표했다. 뇌와 성격을 관련지어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소그룹 활동 왕따 해결"

초등교 교사 신뢰회복 프로그램 제안 (주)가우디가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3개월간 실시한 현장 공모에서 대상 받은 인천 백학초등학교 공숙자 교사(38)가 제시한 방법은 평범하면서도 체계적이며 관심을 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렇다. ▲1단계 '함께 해요' (친구를 확인) 6~7명의 소그룹 편성. 그룹별 노래와 구호제정 ▶2단계 '마음을 열어요' (친구의 소중한 깨달음) 역할극, 친구 칭찬 글쓰기 ▶3단계 '우리는 하나' (신체접촉 통해 신뢰회복)-친구 손잡고 달리기, 팀 대항 놀이, 그룹별 악기 연주 ▶4단계 '힘을 모아요' (협동심 발휘)-공동작품(그림·공예)만들기, 공동 속삭이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위주지만 최근 '왕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직장에서도 특성에 맞게 변형시켜 실시한다면 효과가 있을 듯.

### 햇차 할인 판매

【 햇차 선금 할인판매 주문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사로운 햇차와 함께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봄의 싱그러움 햇차 향기도 함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도 봄기운이 따사롭게 들어오길 기원하면서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초의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 '99 햇차 미리 주문' 행사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실시해 왔으며 '97년 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몇몇 분들이 지리산이나 보성에 가서 함께 차를 만들어 나누는 행사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봄 부터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그 행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좋은 햇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차 문화 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 지리산 차 주문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구분	차종류	우 전 차	초 의 차(세차)	감로차(중차)
	주문가격	35,000	17,000	12,000
	회원가격	45,000	27,000	17,000
	일반가격	80,000	40,000	23,000
	차만드는 시기	4월 12일 ~ 4월 20일	4월 21일 ~ 5월 5일	5월 6일 ~ 5월 20일
	햇차 할인 선금판매기간	~ 4월 10일	~ 4월 20일	~ 4월 30일
	차 발송 기간	4월 21일 ~ 4월 30일	5월 1일 ~ 5월 15일	5월 16일 ~ 5월 31일

■우전은 ~ 4월10일, 세차는 ~ 4월20일, 중차는 4월30일까지 선금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5월1일부터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연락처 : 초의문화재단 전화 02-732-2317 팩스 02-732-2319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6-6 인터넷 : http://www.teancha.co.kr

■계좌번호 : 006-01-0452-791 (국민은행) 예금주 전중석

【 지리산 약양 제다 실습장에서의 제다실습 】

지리산 약양으로 제다실습 하러 오세요!  
지리산 약양의 차 공정에 제다실습을 위한 숙박시설 및 제다실습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제다실습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귀중한 말씀 한가지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 접수하여 실습할 수 있게 해 드리며 혹 신청인원이 많으면 실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 하세요!!

■초의문화재단 지리산 약양 제다 실습장에서 알려드립니다.

###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십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시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산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 입 안 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 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55cm)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동 계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 생활정보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 개통

생활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orknet)이 지난 1일 개통돼 구직자나 구인업체는 집과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직등록과 구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워크넷에서는 상시 고용직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용직 등에 대한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work.go.kr이며 PC통신은 go worknet으로 연결하면 된다.

봄맞이 꽃 직거래 장터

봄맞이 꽃직거래 장터가 서초구 일대에서 25일까지 열린다. 서초구에 밀집한 화훼생산농가가 참여하며,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꽃을 살 수 있다. 서초구청~환승주차장 이면도로, 조달청 앞 도로, 방배2동 청사앞 등 3곳의 보도에서 판매가 이뤄진다.

전국서 과학의 날 행사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사흘동안 부산에서는 과학문화재단과 부산시 교육청 공동 주최로 50여가치의 첨단과학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과학축전이 열린다. 이밖에 행사는 다음과 같다. △가죽 물로켓발사대회=1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02)555-0701 △사이언스 데이=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영화 상영, 등 (042)861-2542

추억의 증기기관차 여행

여행 추억의 증기기관차로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 가 개설했다. 구간은 서울역에서 신촌 수색 대곡을 지나 일영 장흥 송추를 거쳐 의정부까지. 일요일과 공휴일 하루 한 번만 운행. 오전 10시15분 서울역을 출발해 11시50분 의정부역에 도착하며 휴식을 취한 뒤 오후 5시 다시 서울로 향한다. (02)392-1324

엽서로 보험계약 취소가능

보험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엽서 한장만으로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5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류에 첨부된 '계약확인반송엽서'를 보험사에 보내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예술의 전당 '99교향악축제'

공연 전국 16개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99교향악축제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지난 9일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에 참가하는 음악가는 모두 1천2백여명으로 지휘자, 협연자 등 국내외 유명한 음악가가 대거 참여한다. 공연은 26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4월9일, 23일 오후 8시, 16.17일 밤)에 시작된다.